태양보다 더 밝은 불이 바로 나한테 있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마나 돼 있고 유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을 전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 놓으면 모든 것은 바로 그 근본 한 점에서, 한 점과 한 점이 수천, 수만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한 점은 한 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도, 선약도 우리는 그대로 섭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여야만 약인 줄 아는데 진짜 약은 무전자에서 나오는 그 액 자체의 선약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불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할 수 없는, 저런 은하계나 저런 다른 혹성, 별성에서도 구할 수 없는 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바로 한 점의 마음에서나 구하지 절대로 딴 데서는 구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편리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일이, 어떤 때 테레비에서 보면 무슨 꽃가루만 와도 알레르기, 뭐만 와도 알레르기, 고등어만 먹어도 알레르기, 뭐, 천체가 모두 그냥 이름도 많고 종류도 많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쫓아가며, 그렇게 끄달리면서 이 한 몸뚱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한 몸뚱이 살기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차라리 나지나 말 것을….' 하고 아마 대동소이하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것은 하고 볼 일입니다. 꼭 해야만 합니다. 그 수많은 약이 다양하게 내 한 점의 마음에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도 부자도 바로 한 점에 있다는 겁니다. 죽고 살고 응보라든가 인과라든가 유전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 점에 있다는 겁니다. 일체 생명이 다 그것이 한데 합쳐서 내 한 점에 다 포괄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이 아닌 게 없고, 내가 급하면 이 여기에다가만 바로 맡겨 놓고 만약에 한생각을 일으킨다면…. 아, 생각 안 일으킬 수가 없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다가 다리가 어그러졌다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아요? '어이, 다리가 어그러졌네!' 그런 생각이 뭐, 손살피 아주 그냥 금방 신호가 오죠? 신호가 올 때 그냥 '흥, 나를 끌고 다니는 장본인이 다리가 어그러졌으면 날 어떻게 끌고 다니노?' 하고 웃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 당당하고 도도한 여유, 그것이 바로 시시때때로 나를 보조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나의 부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의 중생들은, 이 몸속의 중생들은 어떻게 끌고 가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과로 인해서 또는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다 억겁을 통해서 지내 왔기 때문에 진화돼 가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지금 이 속에 잔뜩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뚱이 속의 그 부하들의 중생은 자기 한생각에 진화가 되느냐. 이 몸속에서, 그 갑갑한 몸속에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도 자기한테 달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게, 물질 아닌 선약이 수천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게 있으며, 이 법이 자연의 법칙과 자동적인 활용과 자동적인 무전통신과 바로 자동 전자, 이 도리가 전체의 이 여기에 모두가 포괄돼서 구성되고 있으니까 모든 게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됐다면 90%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인간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한 이름에 끄달리고 남의 말에 끄달리고 바로 어떠한 종류에 끄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 살맛이 어디 나겠습니까? 나는 사람이 오고 가며 '이렇게 되면 이런 병이고, 이렇게 되면 이런 병이고' 이런 소리만 들어도 아휴, 전체가 아니라 저 병 분야에 대해서, 알레르기 종류 하나만 가지고도 저렇게 천차만별로 이름이 많고 저렇게 종류가 많고, 그러면 계란에도 뭐가 있고 고등어에도 뭐가 있고, 풀꽃에도 있고 풀잎에도 있고 이슬에도 있고 모두 그렇다면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영 모르니 할 수 없이 나는 이렇게도 한번 해 본 예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이름이 뭐더라? 꽃이 일어났다고 그러던가요? 그것만 일어났다 하면 뭐, 예까지 차면 죽는다고 합디다. 뭐 저, 풍란이라고도 그러던가? 그게 무슨, 무슨 꽃, 빨갛게 전부 그냥 두드러기처럼 일어나면서 진물이 나면서 전체 몸뚱이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전체 몸뚱이가 또 하얗게 백목이 먹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집니다. 나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근데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지금 의사들이 말하는 그 하나 가지고도 그냥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이 많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도 오고 어디에서도 온다 이럽니다. 근데 귀찮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 종차 거기에 끄달려서, 한 번 죽기는 마찬가진데 그냥 거기에 끄달려서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이게 여기에서 일어난 거다 저기에서 일어난 거다 이럭하고선 찾다 보면 사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살기가 고달프고 참 막연하고 어처구니없을 때가 있죠.

예전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마는 저 미국으로 간 어떤 중령이 있습니다. 그 아들도 그 병을 얻었죠. 그래서 이 잔등이로 어디로 배고 뭐, 그냥 하나 성한 데 없이 그것이 나면서 숨이 차올라 오면서 정신을 잃게끔 자꾸자꾸 희미해 갔습니다. 그때 그 집은 병원으로 찾아다닐 돈도 없었습니다. 딴 데 가서 병원 의사, 박사한테 물어보면 이것이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 생겼다니까 병원에 와서 약 치료를 하는데, 이게 한 자리라야 어떻게 해 볼 텐데 온통 여러 자리고, 그것을 따고는 물을 빼고서 약을 발라 주는데 얼마 안 있으면 딱정이가 앉으면서 그 속에 또 물이 앉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어떡합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뻘겋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뻘겋게 그냥. 그래 가지고 예까지 차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 이름이 있습디다. 지금 새 이름을 붙여서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귀찮아서 나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벗겨서 보이는데 엄청나요. 이거는 뭐, 거기에 안으로 들이긋기만 하면 뭐, 옴폐부득 없이 그냥 죽겠어요. "엄마의 마음에 달렸어. 어디든지 이 약이 있어. 이 산천초목에 그 약이 없을라고.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죽이고 살리는 건 여기에 매였다고 맡겨 놔 버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가서 촛불 켜 놓고선 그냥 앉아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잠을 자려니까 하얗게 소복한 의사 셋이 들어오는데 한 분은 스님이고 한 분은 또 간호원이고 한 분은 기계 가방을 들었더랍니다. 들어와서 이 가방 속을 탁 여는데 보니까 전부 풀뿌리에 싹이 난 그거더랍니다. 그런데 한 가방인데 풀어 놓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전부 일어나더랍니다, 이렇게. 전부 살았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는 거라고 이럭하니까, 스님이 있다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들어가고 이 한 이파리만 나와도 되느니라." 하고 말을 하니까, 그 이파리가 나와서 거기 아픈 데 가서 전부 붙더랍니다. 그러더니만 그 이파리가 붙어서 진을 묻히고 진을 묻히고 이럭하곤 돌아가더니만 가방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방 속이라고 그런다고 가방인 줄 알지 마세요. 전체 우주 삼라만상 한데 합쳐진 가방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하고 가더니 그 이튿날 아침부터 그게 꾸득꾸득하더니 그냥 씻은 듯 부신 듯 나았더란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알려고 그러고 또는 종류를 쫓아다니고 끄달리고 이러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녹음 안됨)

… 점점 닥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달프게 중생으로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하나하나 듣고 남한테 끄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내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는다면, 이게 가방 하나라면, 내 마음 한 점이 우주 전체의 대천세계의 가방 하나라면 끄달릴 거 하나도 없죠. 죽는다 하더라도 끄달릴 거 없고 산다 하더라도 끄달릴 게 없고 거기에 뭐가 끄달릴 게 있습니까. 종류에 끄달려? 이름에 끄달려? 만약에 한생각이면 배가 부르고 한생각이면 그 어디 아픈 게 낫고, 한생각이면 저기 가고 한생각이면 여기 오고 이럴 정도라면 우리는 살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달프게 살지 않고 말입니다.

>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듣고 남한테 끄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 내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는다면
> 거기에 뭐가 끄달릴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도리를 모르면 영원히 또 이렇게 끄달릴 거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끄달리는 이 자체가 한 점의 마음에 달렸으니 그 한 점의 마음에 천 가지 만 가지 나오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보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듣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활용하는 거 모두 일체 자기의 성품에 의해서, 그 한 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다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자기가 그렇게 맡겨 놓는 반면에 거기에서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약이 돼서, 부당한 게 오는 게 아니라 다 바로 거기에 맞는 약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보이는 약만 생각하고 보이는 이름만 찾고 보이는 데서 방황합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물도 선약이 돼 줄 수가 있고 아주 또 그냥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어떠한 독약이라도 바로 내 생각에 달려 있으니 그 생각에 의해서 그건 독이 빠질 수도 있고 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또 종류가 암모니아도 되고 가스도 되고, 석유 기름도 모두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흙도 항생제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그 폐병의 근원도 없앨 수 있는 그런 항생제 역할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돌에도 생명이 있고 약이 되고 모두가 약이 아니 되는 게 없는데 왜 그 종류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야만 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포천에 계시지마는 아, 그 집의 영감님은 벽에 저, 뭡니까? 진흙 그거를 만날 그냥 맛있게 먹었거든. 맛있게 먹은 게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폐가 너무 망가졌으니까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숯도. 숯은 왜? 숯은 나무가 탄 거기 때문에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다시 그 물을 식혀서 먹으면 열이 내린다 합니다. 그건 들은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그런 걸 생각해 본 예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물, 말하자면 메뚜기나 메뚜기같이 생긴 오줌싸개나 이런 것도 다 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류를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름 찾고 뭐 찾고 종류 찾고 이럴 게 없이 한 점의 마음에는 우주 섭류의 그 근원이, 약뿐만 아니라 천체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에 이익이 있고 생활의 지침이 되고 생활의 연구가 되고 생활의 개발이 되고, 우리는 이 마음의 차원을 좀 더 높여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고 고에서 휘달리며 애를 쓰지 말고….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고도. "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할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체험하고 진짜 여기의 근본이, 우주의 모든 근본이 여기의 한 점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다 내가 아쉬운 대로 꺼내 쓰니까 뭐가 급한 게 있고, 뭐가 겁나는 게 있고, 뭐가 걱정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 아님이 없으면서, 항상 겸손하면서도 그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물과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난 모든 게 귀찮습니다. 왜 귀찮은가? 그 일일이 종류 종류…, 참 귀찮아. 인간 사는 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도 고초스럽고 아주 골치가 아플 지경이죠. 골치 아프게 살지 마세요. 전부 여기에 선약이 다 있고 가난과 우환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기에 다 있고, 편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도도하게 굴러 흘러 돌아가는 이 자체도 여기에 있고 우리가 몸뚱이로 났어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불이 바로 나한테 있다는 그 점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간단하게 해 둡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4월 24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New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